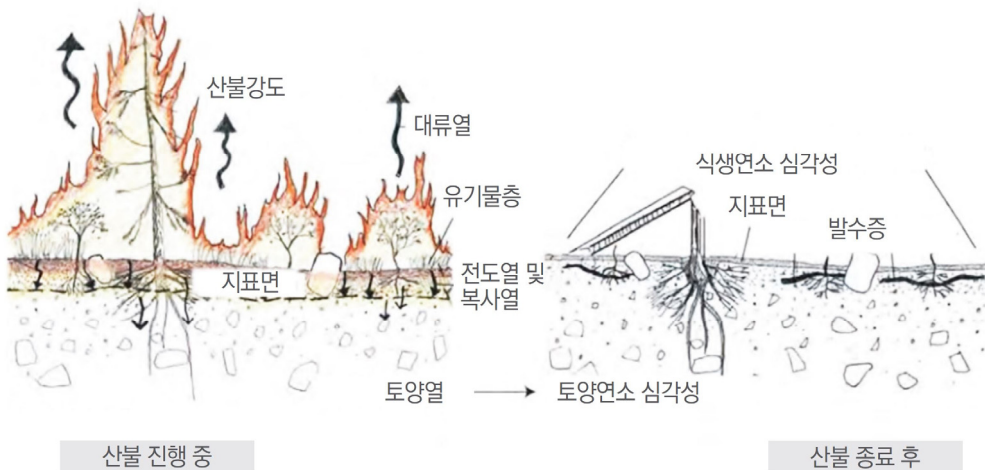


Q6

산불 피해지에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요?

A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북 남원지역 산불피해지를 조사한 결과,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지역에 비해 200배나 높았습니다. 산불피해지역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, 지표면으로 빠르게 흘러 많은 양의 흩을 쓸고 내려가게 됩니다. 실제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시계열적 토사량을 측정된 결과, 산불발생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1,275g/㎡ 이상 유출되어 일반 산림에 비해 3-4배 높았습니다. 또한 산불로 인해 죽은 나무의 뿌리가 부패되면서 토양을 붙잡고 있는 힘이 떨어져,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. 대형산불 지역일수록 산사태에 더욱 취약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.



산불피해지 내 산사태 발생 원리

※ 출처 : USFS, 2010, 미국 산림청